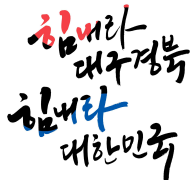
 금융위원회	보 도 해 명 자 료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4.6.(월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	담 당 자	황 기 정 사무관(2832)	

제 목 :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[파이낸셜뉴스 4.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☐ 파이낸셜뉴스는 4월 6일자 조간 「자영업 자금난 특단대책 ... LTV도
손댄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 완화를
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”
 - “정책당국은 최근 현재 연간 1억원 한도로 허용된 생활안정
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
파악됐다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완화하거나,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
담보대출의 연간 취급한도(1억원)를 확대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
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